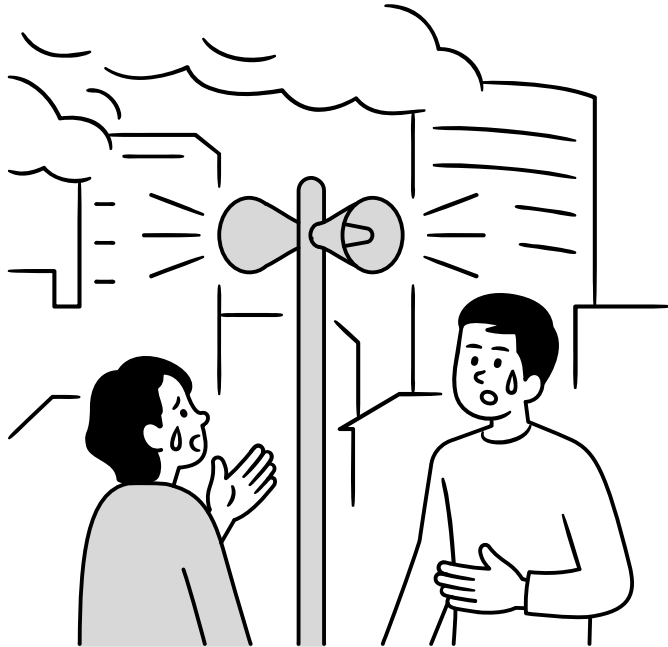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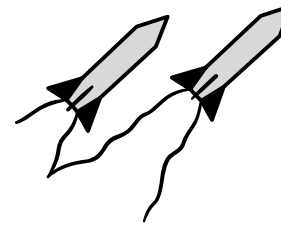


테러 · 무력공격



테러 · 무력공격의 위험

정치·행정·경제가 집중되는 도교는 테러나 무력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4년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무력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2호, 이하, ‘국민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는 이 ‘국민보호법’에 따라 각 구시정촌의 방재 무선으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SNS, TV, 라디오 등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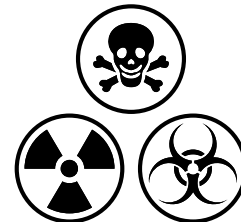
탄도 미사일에 의한 공격

공격 목표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시간의 낙하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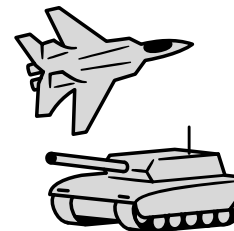
게릴라나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돌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격 목표가 원자력 발전소 등이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화학 작용제 등에 의한 공격

공격용 화학 작용제, 생물학 작용제, 핵물질이 이용된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며 특별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착·상륙 침공, 항공 공격

착·상륙 침공은 해안부가 침공 목표가 되기 쉽고, 항공 공격은 도시부의 주요 시설이 공격 목표가 되는 일도 예상됩니다.

테러·무력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테러나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 등에 주의하여 정보 입수에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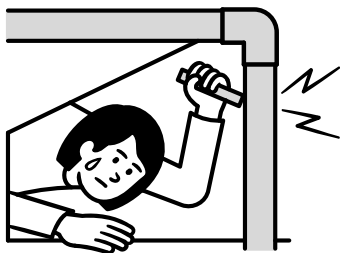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면 즉시 자세를 낮추고 튼튼한 테이블 등 아래에 몸을 숨깁니다. 폭발은 여러 번 계속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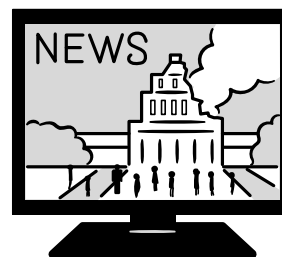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한 경우

테러나 무력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입과 코를 손수건 등으로 막고 되도록 낮은 자세를 취하여 서둘러 대피합니다.



감히면

근처에 있는 배관 등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분진 등을 흡입할 수 있으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릴라 공격으로부터의 대피

피해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실내로 대피한 후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화학 작용제나 생물학 작용제 공격으로부터의 대피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막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떨어져 밀폐성이 높은 실내나 풍향의 반대 방향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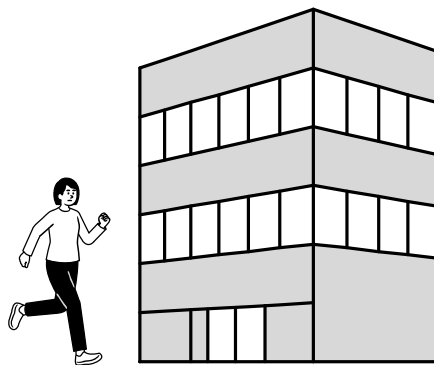


핵폭발이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대피

차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지하시설이나 튼튼한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더러운 폭탄(더티밤)이라고 불리는 핵폭탄은 착탄 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므로 행정기관의 지시 등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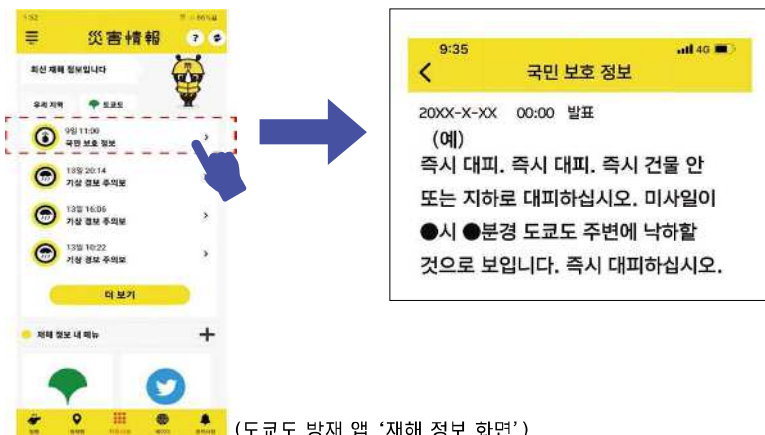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대피

일본 주변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집중되어 있어 군사력의 추가 강화와 군사 활동의 활발화 추세가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고 2022년에 들어서는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J-ALERT를 통한 경계 정보 발령

탄도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전국조기경보시스템(J-ALERT: 제이 얼러트)이 발령됩니다. 방재행정무선으로 특별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 휴대전화의 긴급 속보 메일 등을 통해 긴급 정보가 발송됩니다. ‘도쿄도 방재 앱’에서도 J-ALERT가 발령되면 즉시 알림이 도착합니다.



(도쿄도 방재 앱 ‘재해 정보 화면’)

J-ALERT가 들리면



즉시 대피한다

실외에 있는 경우

인근 건물이나 지하(가능하면 튼튼한 건물)로 대피합니다.



멀어진다

실내에 있는 경우

폭발풍으로 인해 깨진 창유리에 다치지 않도록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숨는다

건물이 없는 경우

물체 뒤로 몸을 숨기거나 지면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합니다.

※도쿄도는 튼튼한 건축물이나 지하 시설 등에 대해 미사일 공격 등의 폭발풍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피시설인 ‘긴급 일시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되도록 가까운 건물과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튼튼한 건축물이나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합니다.



국민보호
포털 사이트
대피시설

탄도 미사일이 낙하한 경우

미사일에는 독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실외에 있을 때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즉시 현장에서 멀어져 밀폐성이 높은 실내 또는 풍향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 있는 경우 환풍기의 작동을 멈추고 창문을 닫은 후 틈새를 종이 등으로 막아 실내를 밀폐합니다.